

자아정체감 발달 수업에서의 포트폴리오 수업방법의 효과와 학년별 추이 - 기술·가정 교과와 청소년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

이현정^{*1)} · 조병은^{**}

동해상업고등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The effect of using portfolio-based lessons on the development of self-identity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its two-year follow up - Focusing on the 'Understanding Adolescents' unit in middle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

Lee, Hyun-Jung^{*1)} · Cho, Byung-Eun^{**}

*Donghae Commercial High School, Teache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Abstract

This research looks at the effects of portfolio-based lessons to help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understand and develop their self identity,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within the school and home environment. The participants were 256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Gangneung-si, Gangwon-do and the analysis was done using the SPSS/WIN 12.0 program. The 6 portfolio-based teaching lessons were made with the aim of developing each subordinate scope in every module for development of self-receptiveness, uniqueness, closeness, tendency of planning the future, and independence. Results of the pre and post-test revealed that scores of self-receptiveness and uniqueness increased. Content analysis revealed that the students pursued their talents and interests through the portfolio activities, and made specific plans for their future careers. In sum,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students became specifically and systematically concerned about their future career.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showed that self-receptiveness developed when their parents' attitudes were not rejecting and their peer relationships were positive. Uniqueness was shown to develop as the fostering

1) 교신저자: Lee, Hyun Jung, Donghae Commercial High School, 65, Neureupjae-gil, Donghae-si, Gangwon-do, Korea
Tel: 033-520-2666, Fax: 033-533-7242, E-mail: beautiful-0304@hanmail.net

2) 본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2013학년도 KNUe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3)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attitudes of parents were receptive. Closeness developed as fostering attitudes of parents were receptive and as their relationships with peers were positive. The students' tendency to plan the future developed as fostering attitudes of parents were receptive and as their relationships with teachers were good, and independence was shown to develop as the fostering attitudes of parents were not rejecting. Results of a two-year follow-up study appeared that self-receptiveness scores decreased as time passed, so students had highest scores in their first year and lowest scores in their third year. Scores of uniqueness, tendency of planning the future, and identity increased in the students' second year and then remained steadily afterward.

Key words: 자아정체감 발달(development of self-identity), 포트폴리오 활용 수업(portfolio-based lesson), 자아정체감의 영향 요인(influencing factors of self-identity), 자아정체감의 2년간 추이(two-year follow up of self-identity)

I.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 이 시기에는 인지능력이 발달하여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시간적 조망이 과거와 미래로 확장된다. 또한 부모나 주변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인지능력의 발달은 자신에 대한 탐색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 탐색 과정은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필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Min, Choe & Kim, 2003).

청소년기는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진로탐색의 시기이지만, 확고한 신념 없이 타인의 의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동조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며(Lee & Kim, 2012) 교과 성적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거나 교사나 부모 등의 의견에 따라 수동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2003). 청소년기는 진학문제, 이성문제 등의 선택과 결정의 시기로 삶의 방향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에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자아정체감 발달이나 진로교육은 남학생 모두에게 중요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아정체감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 형성과 교육은 지속적인 갈등, 방향, 선택의 과정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추적과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계속하여 다루어지고 있으며,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첫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가정생활 영역의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성취 기준으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며, ...」라고 하면서, '청소년의 발달' 영역에서 「청소년기의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행동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아 존중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로 세부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09). 자아정체감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자신의 특기, 적성, 흥미, 능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아정체감을 길러주고,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기술·가정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중요한 과제이다(Hong & Yoo, 2008).

자아정체감 발달에 도움이 되는 수업은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기술·가정 교육과정에는 포트폴리오 방법을 활용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포트폴리오 활동은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포트폴리오 과정을 통해 자신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장점이나 약점, 잠재 가능성 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돕는 것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며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는 발달심리분야에서 계속하여 연구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자아정체감의 의미와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별로 발달의 과정을 탐색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Park, 2004; Han, 2005). 또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들은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고 수업을 적용한 후 효과를 보는 연구들로 이루어져 왔는데 공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수업이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학습의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이 정의적인 부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발달심리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고 가정교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별로 없으며 수업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적용하여 효과를 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에 대한 이해와 발달을 돕고자 가정교과에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수업을 적용한 후 효과를 살펴보고 자아정체감의 학년에 따른 발달경향을 분석하고자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단기종단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각각의 하위영역의 발달을 돕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다.

둘째, 자아정체감 각각의 하위영역의 발달을 돕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에서 여중생들이 작성한 포트폴리오 활동지의 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여중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돕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 적용의 효과를 사전·사후의 검사로 비교 분석한다.

넷째, 여중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가정환경(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환경(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다섯째, 여중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체점수와 하위영역별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반복측정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통해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정체감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을 자아 동일성의 의식적 감각, 개인적 성격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무의식적 지향, 자아의 통합양식, 특정 집단의 이상과 정체감에 대한 내적 일치 등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재편되는 자아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보았다. 또한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성장과정에서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반영되는 종합적인 자기상 또는 자기를 모사해 주는 참조적 심상들의 복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Marcia(1980)는 자아정체감을 내적 자기 종합성을 이룩하려는 심리 기능들이 역동적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청소년들이 이상과 행동 및 사회적 역할을 통합할 수 있는 자아의 성숙된 단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서 보면 개인의 자기구조는 정적인 개념이 아닌 동적인 개념이며 자기구조로서의 자아정체감 발달은 자기통합성을 이룩하려는 심리기능들이 역동적으로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이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 일관성 내지는 동일성인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aterman(1982)은 명확하게 자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인생의 목표, 가치, 신념을 정립시키기 위한 관여, 관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 행동의 존재여부, 정체감에 대한 대안점들을 찾기 위한 범위에 대한 고려, 자기수용의 정도, 개인적인 독특성에 대한 감각,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감의 자아정체감의 7가지 측면들의 조합을 조작적인 정의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념들을 종합하면 자아정체감이란 대상으로서의 자아의 한 형태로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자기 탐색적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신의 능력, 위치,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기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심리분야에서는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하위요소 중심으로 연구하여왔으며, 가정교과에서는 기술·가정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자아정체감의 하위 구성요소를 구성하였다.

Seo(1975)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의 8가지로 하위요소를 구성하였고, Lee(1999)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식의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 대인역할 지각의 6가지로 하위요소를 구성하였으며, Park(2003)은 목표지향, 미래확신, 자기수용, 주도성, 주체성, 친밀성의 6가지로 자아정체감 하위요소를 구성하였고, Min et al.(2007)는 자아목표감, 자아수용감, 자아주도감, 대인친밀감의 4가지로 하위요소를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Park(2003)의 6개 하위요소와 Seo(1975)의 8가지 하위요소가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자아정체감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정교과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소를 Lee(2009)가 자아정체감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자기수용성, 자기존재의식,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체성, 독특성, 주도성, 친밀성, 안정성의 9가지로 추출하고 제 7차 교육과정 12종 기술·가정 교과서의 자아정체감 관련 단원을 자아정체감 하위요소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문장단위로 분석한 결과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자아정체감의 미래확신성과 자기존재의식을 다룬 교과서가 9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기수용성은 8종, 주체성 7종, 목표지향성 6종, 친밀성, 주도성은 5종, 독특성, 안정성은 3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다. Lee(2009)는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자기수용성과 자기존재의식은 자기수용성 영역으로, 주체성, 주도성은 주체성 영역으로, 미래확신성과 목표지향성은 미래계획성 영역으로 하위요소를 묶고, 친밀성, 안정성, 독특성은 그대로 두어 6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설명해주는 변인들로 대부분 연구되었으며 개인적 특성, 가족, 학교 등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을 파악하려 시도하였다.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중학생은 미래확신성과 주도성이 다른 하위영역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Park, 2004), Kim(200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고, Min et al.(2003)은 중학생이 학년이 높을수록 목표지향성, 친밀성, 주도성 등의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성차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친밀성이 높고(Min et al., 2003), 자기존재독특성, 자기주장, 대인역할지각

이 높게(Park & Chung, 2002)나타나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별로 성차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부모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체감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Hong, 1988), Yoon(1989)은 정체감의 하위영역인 대인역할기대와 자기수용 및 자기인식에서 Kim(1990)은 안정감에서 높다고 하였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일수록 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Kim & Kim, 2001). Song(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지각한 집단과 거부적으로 지각한 청소년 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족관계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세계를 넓혀 나가는데 Song(1998)은 청소년기 또래의 인정과 지지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학교관련 변인들을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높으면 자아정체감도 높고(Koo, 2005) 친구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이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1). 친구와의 관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고,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Koo, 2005)와 진로결정 수준(Moon & Kim, 2003; Lee & Kim, 2004)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정 교과에서의 자아정체감 선행연구인 Hong & Yoo(2008)의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에서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성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9)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돕는 수업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돕는 수업은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요소를 발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중단연구들도 최근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다. 진로에 관한 중단연구에서 Kim & Seo(2010)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하

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고 맥락적 장벽을 적게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 갈등이 심하고 학교에서 진로 관련 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성숙도의 발달에 대한 단기종단연구(Lim, 2004)에서는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증가현상이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변화가 성별·학년별로 차이가 있었다.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Roh, 2013)의 종단연구에서는 경제적 불안정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크게 후퇴시키며, 성별, 성적, 또래관계, 진로지도 경험, 모의 관심 등 개인, 학교, 가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진로 수준에 대한 종단 연구는 있으나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자아정체감에 관한 종단연구는 없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자아정체감 교육에 대한 효과를 보는 연구도 거의 없으며, 가정교과 내에서도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포트폴리오 활용 수업

포트폴리오는 여러 분야에서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학교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학습, 성장, 발달 등이 담겨진 학생들의 작품, 수행결과 기록물이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작업을 통해 자기 자신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자신의 장단점과 잠재 가능성 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습주체임을 인식시키고 자기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에 적합하다.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활동하는 학생 포트폴리오의 수업 방법이 효과적이다.

포트폴리오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영어, 사회, 음악, 체육, 컴퓨터 교과 등 많은 교과에서 포트폴리오 자료 개발과 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수학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위한 포트폴리

오 수업이 학습자의 수학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Lee & Choi, 2007), 과학 교과에서는 과학에 관련된 태도 평가에 대한 인식이 효과적으로 변화하였고, 포트폴리오가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켰다(Song, 1998). 체육 교과에서는 포트폴리오가 학생의 자기 반성적 사고를 높여서 책임감과 활동적인 학습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1999). 가정교과에서는 Lee(2000)가 고등학교 가정식 문화 단원에 포트폴리오 평가를 적용하여 효과를 보았고, Choi(2002)는 의복구성 교과에서 포트폴리오를 수행평가 도구로 활용한 결과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태도를 향상시키며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Lee & Lee(2007)는 반바지 만들기 단원에 포트폴리오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자신감, 흥미, 성취동기 등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가정교과 수업 시간에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돕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을 적용하여 효과를 본 연구는 거의 없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강원도 강릉시 K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업적용은 연구자가 직접 1학년 기술·가정 교과시간에 9개 학급의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수업적용의 대상자중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연구진행 도중 전학을 가거나 오는 등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대상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1단계는 2009년 9월 23일-30일까지 2009년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등의 관련변인들에 대해 조사하였고, 2단계에서는 동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1일-11월 30일까지 포트폴리오

를 활용한 자아정체감 수업을 적용하였으며, 3단계에는 2009년 12월 1일-7일의 기간동안 자아정체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4단계에는 2010년 12월 1일-7일의 기간동안 2009년에 입학한 연구대상자들이 2학년이 되었을 때의 자아정체감을 검사하였고, 5단계는 2011년 12월 1-7일의 기간동안 연구대상자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의 자아정체감을 검사하였다.

2. 측정 도구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2003), Seo(1975)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Lee(2009)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정체감 척도는 자기수용성, 독특성, 친밀성, 미래계획성, 주제성을 하위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자기수용성의 신뢰도 계수는 1학년 사전 .81, 1학년 사후 .82, 2학년 .84, 3학년 .82이고, 독특성은 1학년 사전 .72, 1학년 사후 .72, 2학년 .66, 3학년 .82이며, 친밀성은 1학년 사전 .85, 1학년 사후 .86, 2학년 .85, 3학년 .84이다. 미래계획성의 신뢰도 계수는 1학년 사전 .75, 1학년 사후 .74, 2학년 .74, 3학년 .73이며, 주제성은 1학년 사전 .79, 1학년 사후 .83, 2학년 .83, 3학년 .84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7단계 Likert척도로 검사하였다.

부학력과 모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문하였으며 가정경제 수준은 하, 중, 상으로 구분하여 설문하고,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Howard, Barnes 및 Olson(1982)이 개발한 척도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중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각 10문항씩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Likert식 7단계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신뢰도 계수는 .84이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신뢰도 계수는 .85이다. 부모 양육태도 유형은 Song(1994)의 애정과 통제에 관한 30개 문항 중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Likert식 7단계 평정척도로 하였으며 부모 양육태도 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아버지의 수용적인 양육태도 .85, 어머니의 수용적인 양육태도 .82이고, 아버지의 거

부적인 양육태도 .75,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태도 .76이다.

학교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Lee(2009)의 연구에서 학교 교사에 대한 태도 5문항과 학교 친구에 대한 태도 5문항을 사용하였다. 검사에 대한 응답은 7단계 Likert척도로 하였으며,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교사에 대한 태도와 친구에 대한 태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학교 태도 척도 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교사와의 관계 .90이며, 친구와의 관계 .90이다.

3. 포트폴리오 활동지 내용 분석

가정교과에서 자아정체감이 발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의 적용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아정체감의 각 하위영역별로 포트폴리오 활동지의 내용분석을 하였다.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강점 지능을 살려 진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보았다. 자기수용성의 발달을 도와주기 위한 ‘내가 생각하는 나’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어떠한 특징들을 생각하는지 제시한 특징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빈도수를 측정하였고, 활동 후 학생들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을 통해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에 대한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나’ 활동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 어떤 내용의 특징을 알려 주는지 살펴보았으며, ‘나는 달라’의 활동은 다양하게 색칠된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고,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는 친구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이야기 해 주는지,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는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는지를 학생이 직접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색상으로 살펴보았다. ‘나의 다중지능 측정’은 8가지의 다중지능의 빈도를 측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래희망과 다중지능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았으며 ‘나의 진로 계획 세우기’ 활동에서는 장래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장래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내 인생이 영화로’의 활동은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분석하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고민을 나누는 친구 수는 없음 1.2%, 1-2명 31.3%, 3-5명 37.5%, 6-8명 14.1%, 매우 많음 14.8% 이며, 본인이 느끼는 경제 수준은 하위층 3.9%, 중위층 84.4%, 상위층 11.4%이다. 부학력은 중졸 이하 3.1%, 고졸 및 중퇴 39.1%, 대졸 및 중퇴 45.7%, 대학원 이상 10.2%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3.6%, 고졸 및 중퇴 54.3%, 대졸 및 중퇴 32.4%, 대학원 이상 7.8% 이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4.41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정도는 4.74점으로 나왔으며 부모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자신

을 수용적으로 느끼는 정도 4.80점, 어머니가 자신을 수용적으로 느끼는 정도 5.23점으로 나타났다. 거부적으로 느끼는 정도는 아버지 2.47점, 어머니 2.77점으로 아버지를 조금 더 거부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친구와의 관계는 5.66점이 나왔으며, 교사와의 관계는 4.19점으로 나타났다.

2.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의 발달을 돕는 포트폴리오 활용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의 발달을 돕는 포트폴리오 활용 수업 자료는 각 차시마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이 반영되도록 차시별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수업에 필요한 활동지, 파워포인트 자료, 영상 자료 등의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

Table 1. Themes/Goals/Activities by Each Period

1 st period	Theme	What does 'sense of self-identity' mean?
	Goal	1) Through a pre-test on sense of self-identity, the students will examine the status of their own self-identity. 2) The students will know the meaning of sense of self-identity. 3) The students will know the importance of sense of self-identity.
	Portfolio Activities	Self-exploration exercise, Compose a three-part poem with your name
2 nd period (Self-receptiveness)	Theme	I'm worth it!
	Goal	1) The students will know about how I perceive myself, and how my parents perceive me. 2) The students will have positive images of themselves.
	Portfolio Activities	Me through my own eyes*, Me through my parents' eyes*
3 rd period (Uniqueness)	Theme	I am who I am!
	Goal	The students will acknowledge unique traits about themselves.
	Portfolio Activities	I am different*
4 th period (Closeness)	Theme	My precious friends!
	Goal	1)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maintain autonomous peer relationships. 2) The students will learn about positive peer roles in adolescence.
	Portfolio Activities	Knowing my friends, What is a friend to me?, I like these kinds of friends, How do my friends think of me?*
5 th period (Future planning)	Theme	My dream, my life
	Goal	The students will: 1) Know their aptitude. 2) Know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occupations. 3) Be able to choose the career path that is right for them.
	Portfolio Activities	Multiple Intelligence Measurement*, What will my career path be?*
6 th period (Sense of autonomy)	Theme	I lead my own life!
	Goal	The students will: 1) Be able to establish and fulfill their own plans. 2) Be able to examine the status of their sense of self-identity through a sense of self-identity post-test.
	Portfolio Activities	Checking my own sense of autonomy, My life in movies*

* 표시는 포트폴리오 활동

다. 1차시는 45분으로 되어 있으며, 차시마다 각각 다른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Table 1>.

1차시에는 ‘오즈의 마법사’ 줄거리의 동영상과 함께 감상하며 자아정체감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느끼도록 하고 자아정체감 사전검사를 실시하며 자아정체감의 의미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내 이름으로 생각하는 자아정체감’의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잠시동안 생각해보고 수업을 마치면서 ‘스케치북’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감상한다. 자기수용성의 발달을 돕는 2차시에는 ‘18cm 긴 여행’ 동영상을 감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특징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나는 것을 적도록 하였다. 자신의 특징을 다 적은 후에는 적은 특징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특징인지, 나쁜 특징인지 색깔로 구별하도록 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활동을 마친 후 ‘이런 내가 되겠습니다’ 활동을 하여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다짐을 적어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함께 감상하고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나’ 활동을 과제로 제시한다. 3차시는 독특성의 발달을 돕기 위해 ‘왼손잡이’ 노래를 감상하고 나의 주도성 정도를 체크해보며 ‘나는 달라’ 활동지를 통해 친구들과 다른 나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를 완성한 후에 친구들과 색칠된 활동지를 비교하면서 자신과 친구들이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친밀성의 발달을 돕는 4차시는 ‘너랑나랑’의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친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의 친구 관계 알아보기’, ‘내가 생각하는 친구란’ 활동을 한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있는가를 척도로 체크해보며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친구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을 한다. 5차시는 미래계획성의 발달을 돕기 위한 차시로 어릴적 수학 천재가 수학적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발레리노가 되었다는 광고를 감상하고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직업의 종류 말하기 게임을 하고, ‘나의 다중지능 측정’을 통해 자신의 강점지능을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나의 진로계획 세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 보도록 하였다. 수업은

‘거위의 꿈’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 한다. 주체성의 발달을 돕기 위한 6차시는 피터팬 증후군의 인터넷 기사를 보며 피터팬 증후군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며 시작한다. 나의 주체성 정도를 척도로 체크해보고 ‘내 인생이 영화로’ 활동을 통해 과거, 현재의 모습을 토대로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수업의 정리는 ‘피터팬 증후군’ 노래를 들으며 마무리 한다. 개발한 포트폴리오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은 가정과 교수 1인과 교사 2인에게 안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3. 포트폴리오 활동지를 통한 자아정체감에 대한 내용 분석

자아정체감 발달을 돕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1학년 시기에 포트폴리오 활용 수업을 적용하였다. 포트폴리오는 ‘내가 생각하는 나’,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나’, ‘나는 달라’,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 ‘나의 다중지능 측정’, ‘나의 진로 계획 세우기’, ‘내 인생이 영화’로의 7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활동 결과 168명의 학생은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기록했으며, 58명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기록하였고, 30명의 학생들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똑같이 적었다.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신체특징, 학교생활(성적, 친구관계,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등), 취미, 특기, 좌우명(가치관), 진로에 대한 고민, 장애희망, 성격,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생활습관, 장점, 단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을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켜서 적었다.

성격은 긍정적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것은 351건이었으며, 부정적인 성격은 382건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적은 학생들이 더 많았다.

학교생활은 좋아(잘)하는 과목, 싫어(못)하는 과목을 적은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좋아(잘)하는 과목, 싫어(못)하는 과목을 자신의 진로분야와 연결하여 생각하였다. 좋아(잘)하는 과목은 181건으로 활동을 많이 하거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나 교사가 재미있다는 등의 이유로 적었으며, 싫어(못)하는 과목은 146건으로 생각하기가 복잡하거나 교사가 지루하거나

활동적인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 등으로 적었다. 학생들은 싫어(못)하는 과목보다 좋아(잘)하는 과목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적었다. 자신의 성과 관련해서 적은 학생들은 99명이었으며 그 중 21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적었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적은 학생은 69명이었다. 성적에 관해 적었으나 자신의 성적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학생은 9명이었다.

키, 몸매, 생김새, 체력, 목소리 등의 자신의 신체·외모 역시 앞으로의 진로와 연결하여 생각하며 적었는데 신체·외모에 대해서는 52명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인식한 내용을 적었으며 50명의 학생은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23명의 학생은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체·외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의 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의 수가 비슷하였다.

장래희망을 적은 학생은 모두 185명이었으며, 146명은 1가지의 직업을 잠정적으로 정하였으며 23명은 2가지의 직업을 고민하고 있었고 16명은 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고민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장래희망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으나 교사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이 44명으로 특히 많았다. 25명이 요리와 관련된 일을 장래희망으로 적었고, 방송과 관련 된 일은 22명이었으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 16명, 사육사, 수의사 등의 동물 관련 분야 16명이었다. 디자인 관련 일을 희망하는 학생은 9명, 화가, POP가사, 웹툰 작가 등 그리기 관련 일을 희망하는 학생은 8명 이었다. 그 외에 경찰, 군인, 음악 치료사, 심리치료사, 상담사, 심리학자, 통역사, 외교관 등 다양한 장래희망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적은 학생들 중에서 20명의 학생은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21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거나, 부모님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었다. 18명의 학생은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적었으나 긍정·부정을 표시하지 않았다. 장래희망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꿈을 찾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진로고민을 긍정적으로 하였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나’ 활동은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특성에 대해 적어보는 활동으로 부모님들은 학생들에 대해 성격 234건, 성적·공부 60건, 외모 30건, 특기·취미·잠재력 25건, 바람 18건 등에 대해 적어 주었다. 진로에 대해 적어준 부모님의 의견도 44건이 있었다. 이 과제를 통해 부모님과 자신의 특성과 진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자녀가 고쳐야 할 점을 알려주는 기회가 되었으며,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경우도 많아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수용성의 발달을 돕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나’,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나’ 2가지의 활동을 하였으며,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생각해보고, 부모님을 통해 내가 알고 있지 못한 특징도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나의 긍정적, 부정적인 부분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모님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독특성의 발달을 돕기 위해 ‘나는 달라’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이 활동에 제시된 많은 단어들 통해 자신에 대해 폭넓게 생각할 수 있었으며 256명의 색칠이 완성된 활동지를 친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색칠한 결과가 친구들과 겹치지 않는 것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과 잘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 못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독특성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었다.

친밀성의 발달을 돕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의 활동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특징을 알 수 있었으며, ‘내가 생각하는 나’와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가 일치하는지 다른지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친구들의 장점, 단점, 잘하는 것, 고쳐야 할 점 등의 특징을 적어주었으며,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어떠한 진로가 어울릴지 진로와도 연결하여 활동지를 채워주었다. 친구들은 긍정적인 특성이나 장점들을 진로와 연결하여 알려주었으며, 이것은 칭찬처럼 느껴지게 하여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미래계획성의 발달을 돕기 위해 ‘나의 다중지능 측정’ 활동지와 ‘나의 진로 계획 세우기’ 활동을 하였다. ‘나의 다중지능 측정’ 활동 결과 대인관계지능이 가장 높게 나온 학생이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기이해지능이 가장 높게 나온 학생은 47명, 음악지능 38명, 공간지능 30명, 신체운동지능

26명, 논리수학지능 20명, 언어지능 15명, 자연친화지능 6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활동에서 적었던 장래희망과 자신의 강점 지능이 일치하는지 살펴본 결과 자신의 강점 지능에 맞게 장래희망을 선택한 학생이 180명으로 나타나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래희망을 결정한 학생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진로계획 세우기’ 활동은 스스로 진로계획을 세워보는 것으로 나의 장래희망을 위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20대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적었다. 그 결과 23명의 학생은 장래희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장래희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적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7명의 학생은 2가지 이상의 고민 중인 장래희망에 각 시기마다 모두 해야 할 일을 적었고, 87명의 학생들은 한 가지의 진로를 정하고 자신의 진로계획을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130명의 학생들은 장래희망은 정했으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다. 어떠한 직업이든지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고등학교, 대학교의 관련 학과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학교들의 인지도로 선택하여 계획을 작성한 학생들이 많았다. 장래희망을 정하고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학생 87명과, 장래희망을 정했으나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학생 130명을 합하면 217명이며, 이는 연구대상자 256명중 약 85%의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130명의 학생(약 51%)은 장래희망을 정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나타난 결과는 아직 중학교 1학년의 시기라 진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주체성의 발달을 돕는 ‘내 인생이 영화로’ 활동의 진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만든 학생들을 살펴보면 30명의 학생들은 첫 장면을 성공한 직업인으로 시작하였으며 7명의 학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나이가 많이 들어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12명의 학생은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시작하였다. 관객들이 많이 웃는 장면은 47명의 학생들이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는 해프닝들을 적었으며, 관객들

을 슬프게 하는 장면은 37명의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들게 도전하는 과정, 방황하는 과정을 적었다. 관객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는 장면은 진로와 관련하여 90명이 이야기를 만들었다. 90명의 학생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장면을 적었으며, 마지막 장면 역시 68명의 학생들이 성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학생들이 만든 영화 이야기를 보면, 꿈을 이루는 것은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해야 꿈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각오도 볼 수 있었다. 관객들의 소감을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은지 알 수 있었는데, 87명의 학생들이 행복한 삶, 성공한 삶, 감동적인 삶, 훌륭한 삶,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였다.

4.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자아정체감 수업의 효과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자아정체감 발달을 돕는 수업의 사전·사후 대응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자아정체감 사전검사의 평균 점수는 24.31점, 사후검사의 자아정체감의 점수 평균은 24.52점이다. 자아정체감을 이루는 각 하위영역별 점수로 보면 자기수용성은 사전 4.86점에서 사후 5.03으로 나타났고, 독특성은 사전 4.53점에서 사후 4.68점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에서는 친밀성, 자기수용성, 주체성, 독특성, 미래계획성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고, 사후검사에서는 친밀성, 자기수용성, 독특성, 주체성, 미래계획성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다. 여중생들은 친밀성이 가장 높고, 미래계획성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5. 가정환경, 학교환경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과 학교환경(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이 자아정체감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Table 2.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sense of self-identity and subordinate categories

(N = 256)

		Pre-test	Post-test	t
		M(SD)	M(SD)	
Sense of self-identity		24.31(3.91)	24.52(3.93)	-1.16
Subordinate categories	Self-receptiveness	4.86(1.17)	5.03(1.13)	-2.59**
	Uniqueness	4.53(1.12)	4.68(1.01)	-2.30*
	Closeness	5.71(1.08)	5.67(1.08)	.62
	Future planning	4.50(1.22)	4.51(1.16)	-.08
	Sense of autonomy	4.71(1.15)	4.63(1.17)	1.06

* $p < .05$, ** $p < .01$

정도와 양육태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점수 간에 다소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서 이들을 회귀분석에 동시에 투입하기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아버지와 어머니 점수를 합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 수용적 양육, 부모 거부적 양육 변수를 생성한 후 회귀분석의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산팽창인자(VIF) 값은 최대 2.7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살펴본 결과 1.87~2.20으로 2에 가까워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 자기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의 수용적, 거부적 양육태도가 투입된 모형1은 자기수용성 총 분산의 20%를 설명하였으며($F = 11.86, p < .001$), 부모와의 의사소통($\beta = .20, p < .05$)과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beta = .21, p < .01$)가 자기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부모와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지 않을 때 자기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Table 3.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on subordinate categories of sense of self-identity

Variables	Self-receptiveness			Uniqueness			Closeness			Future planning			Sense of autonom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Perceived economic status	-.04	-.05	-.05	.03	.02	.02	.03	.01	.01	.06	.06	.06	-.00	-.01	-.01
Father's level of education	-.05	-.06	-.06	-.02	-.02	-.02	.00	-.01	-.01	.07	.07	.06	-.04	-.04	-.04
Communication with parents	.20*	.18*	.17	.13	.12	.10	.05	-.02	.02	.03	.01	-.01	.11	.11	.11
Parents' receptive parenting attitude	.12	.10	.09	.27**	.26**	.24**	.22*	.16*	.19*	.24**	.23**	.20*	-.02	-.03	-.03
Parents'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21**	-.21**	-.21**	.01	.01	.01	-.05	-.07	-.08	-.10	-.10	-.10	-.18*	-.19*	-.17*
Peer relations		.17**	.15**		.09	.07		.44***	.47***		.12	.09		.05	.05
Teacher relations			.06			.09			-.12*			.15*			-.01
F	11.86***	11.68***	10.13***	7.36***	6.51***	5.86***	4.33**	14.96***	13.59***	6.54***	6.11***	6.10***	3.25***	2.81*	2.40*
R2	.20	.22	.23	.13	.14	.15	.09	.27	.28	.12	.13	.15	.06	.07	.07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가 추가로 투입된 모형2는 자기수용성 총 분산의 22%를 설명하였으며($F = 11.68, p < .001$), 부모와의 의사소통($\beta = .18, p < .05$),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beta = -.21, p < .01$), 친구와의 관계($\beta = .17, p < .01$)가 자기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 교사와의 관계가 추가로 투입된 모형3에서는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beta = -.21, p < .01$)와 친구와의 관계($\beta = .15, p < .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수용성 총 분산의 23%를 설명하였다($F = 9.90, p < .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지 않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여중생의 자기수용성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 독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1은 독특성 총 분산의 13%를 설명하였으며($F = 7.36, p < .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beta = .27, p < .01$)일수록 독특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beta = .26, p < .01$)가 독특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모형3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beta = .24, p < .01$)일수록 독특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1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beta = .25, p < .05$) 일수록 친밀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2는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beta = .16, p < .05$)와 친구와의 관계($\beta = .44, p < .001$)가 여중생의 친밀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친밀성 분산의 28%를 설명하였으며,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beta = .19, p < .05$), 친구와의 관계($\beta = .47, p < .001$), 교사와의 관계($\beta = -.12, p < .05$)가 친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성 모형1은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beta = -.18, 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모형2에서도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beta = -.19, 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모형3 역시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beta = -.17, 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여중생의 주체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지 않을수록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생의 자기수용성, 독특성, 친밀성, 미래계획성, 주체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수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지 않고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발달하며, 독특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발달하며, 미래계획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발달하였고 주체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지 않을수록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자아정체감의 종단적 추이 분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정체감 전체와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인 자기수용성, 독특성, 친밀성, 미래계획성, 주체성의 평균과 LSD사후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중생의 자기수용성의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수용성은 측정시기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져서 2학년이 되면 점수가 상승하고 3학년 시기에는 점수가 낮아졌다. 독특성은 1학년

Table 4. Mean, SD and LSD post-hoc scores of sense of self-identity by grade(N = 256)

	Grade 1	Grade 2	Grade 3	F	
	M(SD)	M(SD)	M(SD)		
Sense of self identity	24.52(3.93)	23.49(3.94)	23.29(3.62)		
Subordinate categories	Self-receptiveness	5.03 _c (1.13)	4.93 _{ac} (1.15)	4.72 _b (1.06)	7.36 ^{***}
	Uniqueness	4.68 _b (1.01)	4.25 _c (.95)	4.29 _c (.99)	17.21 ^{***}
	Closeness	5.67(1.08)	5.73(1.03)	5.61(.97)	1.18
	Future planning	4.51 _a (1.16)	4.14 _b (1.09)	4.22 _b (1.00)	14.80 ^{***}
	Sense of autonomy	4.63 _a (1.17)	4.44 _b (1.14)	4.45 _b (1.02)	7.34 ^{***}

Note. The letters a,b,c in the mean score category denote groups (from results of LSD post-test).

시기에 가장 높은 점수로 시작하였으나, 2학년 시기에는 유의미하게 하락하였으며, 3학년 시기에는 유의미한 차이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성은 측정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1학년, 2학년 및 3학년 시기에 여중생이 보이는 친밀성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계획성은 1학년 시기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2학년 시기에 유의미하게 점수가 감소하였고 3학년 시기에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성은 1학년 시기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가 2학년이 되면 유의미하게 점수가 하락하고, 3학년에는 소폭 점수가 상승하나 거의 유지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기술·가정교과에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에 대한 이해와 발달을 돕고자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수업을 적용한 후 효과를 살펴보고 자아정체감의 학년에 따른 발달경향을 분석하고자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단기종단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여중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중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돕기 위해 6차시의 포트폴리오 활용 수업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대응-t 검증을 실시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포트폴리오 활동지를 분석하여 여중생의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진로에 대한 고민의 정도를 알아보고 여중생의 자아정체감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또한 학년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3년동안 자아정체감을 척도지로 측정하고 반복측정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자아정체감의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아정체감에 가정환경(부모님과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과 학교환경(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강원도 강릉시 K여자중학교 2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여중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돕는 6차시의 포트폴리오 교수·학습과정안은 자기수용성, 독특성, 친밀성, 미래계획성, 주체성이 발달할 수 있도록 차시마다 각 하위영역을 발달시키는 것을 학습목표로 개발하였으며,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 발달을 위해 7가지 활동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의 활동을 통해 장래희망을 정하고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고,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미래계획성이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자아정체감 수업은 자기수용성과 독특성이 유의미하게 점수가 상승하였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자기수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지 않고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발달하며, 독특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발달하며, 미래계획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발달하였고 주체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지 않을수록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학년별 종단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수용성, 독특성, 미래계획성, 주체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성의 점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특성, 미래계획성, 주체성은 2학년 시기에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돕는 포트폴리오 활용 수업을 적용한 후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중 자기수용성과 독특성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은 자아정체감 발달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수업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계획성은 척도 검사상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포트폴리오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장래희망을 정하고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고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미래계획성이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포트폴리오의 수업방법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돕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하위영역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친밀성이 모든 시기

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미래계획성은 모든 시기에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학교의 시기가 친구에게 관심이 많은 시기이며 진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 자기수용성, 독특성, 미래계획성, 주제성의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은 2학년 시기가 되면 유의미하게 점수가 감소하는데 이는 자아정체감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많아져서 나타나는 결과 일 수 있다.

셋째, 여중생의 자아정체감은 모든 하위영역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ong, 1994)와 일치하며 중학교 시기의 자아정체감 발달은 부모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중학교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지녀야 함을 나타낸다.

넷째, 친구들의 장점, 단점, 잘하는 것, 고쳐야 할 점 등의 특징들과 그러한 특징들이 어떠한 진로와 어울릴지 알려주는 활동은 여중생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여중생의 친구와의 관계는 자아정체감의 자기수용성과 친밀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들은 여중생들이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와의 관계가 미래계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학교 환경이 좋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Song & Park,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미래계획성은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영역인데 다른 요인보다 교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미래계획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여중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여 모든 중학생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후속연구에서는 여중생, 남중생, 남녀공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의 척도로 학년별 차이를 보았지만,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

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1학년 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의 시기에도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을 적용하여 학년별 차이를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본 연구가 많은 교사들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활용하여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시작하는 여중생들로 하여금 자아정체감이 보다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여중생들의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Cho, H. M. (1996). Application of Portfolio Assessment in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3(2), 67-82.
- Choi, H. O. (2002). *A Performance Assessment Of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Subject In Vocational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 Buk, Korea.
- Choi, S. Y.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ego-identity in adolescent.. *Journal of Child Education*, 10(1), 119-132.
- Hong, S. A. (1988). *Home environment and family interaction type system of self-identity formation impact on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H. Y & Yoo, T. M. (2008). Analysis of Influential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Self-Identity -.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49-64.
- Kim, G. J. (2003). *Relationship between the Ego-Identity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 Nam, Korea.
- Kim, M. S & Seo, Y. S. (2010). A Longitudinal Study on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Status and Contextual Variables on Adolescents' Career Indecision. *Korea*

- Journal of Youth Studies*, 21(2). 67-96.
- Kim, S. I. (2001). Relations of parental communication patterns perceived by adolescents to their ego-identity development. *Korea Journal of Psychology*, 14(1). 75-89.
- Kim, S. Y. (2003). The Influence of the Adolescent'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 Activities on the Perceived Freedom and Self-Identity, *Journal of Korea Sports Social Science*, 16(2). 497-511.
- Kim, Y. A. (1990). *Parent-child communication modes and stability of the social impact of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 Buk. Korea.
- Koo, C. M. (2004). The relation between the type of leisure activity and self-identity of youth.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Korea*, 43(5). 91-100.
- Lee, J. I. & Choi, K. M. (2007). Mathematics instruction that classified by level, it applied the portfolio. *Journal of Professor of Korean Studies Institute*, 10(4). 437-453.
- Lee, J. O. & Lee, S. H. (1999). The Development of Portfolio Materials for Practical Arts Performance Assessment on the Unit of Woodenware Making.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5(2). 85-98.
- Lee, Y. J. (2004). *Using a portfolio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class attitudes and perceptions impact on the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aegu. Korea.
- Lee, J. H. & Kim, H. S. (2012). The Effects of a Classroom-Based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Career identity and Ego-identity of Middle School 1st Grad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8). 191-217.
- Lee, J. A. (2000). *The Effect of Portfolio Assessment in High School Home Economics Food Cul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R. & Cheon, M. S. (2003). Relationship Analyses Between Adolescents' Ego-Identity and School Life Adjustm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4). 511-541.
- Lee, H. J. & Lee, H. J. (2007). Development of portfolio material and analysis for effect of class : classes of technique and domestic subjects in middle school and members of "making short pants" as cor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1). 15-33.
- Lee, H. J. (2009). Research on the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a Teaching and Learning Curriculum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Self-Ident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3). 23-34.
- Lee, H. J. (1999). *Portfolio assessment in primary school mathematics tutoring Benefits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aegu. Korea.
- Lim, E. M. (2004). The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Youth's Career Matur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2(3). 325-348.
- Min, S. J., Choe, U. J. & Kim, S, H. (2003). The Study between Sport Club Activities and Ego-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13(1). 21-28.
- Min, H. Y. & Gwon, G. N. (2004). Low-incom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relationship of the child and the child's parents' parenting behaviors centered ego identity.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5(2). 81-92.
- Min, H. Y., Kim, G. H. & Lee, Y. M. (2007). Influence of sexual values and sexual knowledge on ego-ident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6(1). 39-47.
- Moon, S. T. & Kim, Y. H. (2003). The Effects that Social Economic Status of Parents, attachment with Parents, and Self-identity have upon Career Decision Level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Career Education*, 16(2). 1-16.
- Park, A. C. & Lee, S. K. (2000). A Structural Analysis of

-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Ego-identity Development Centered on Sex and Ag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0(2). 255-282.
- Park, A. C. (2004).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Aspects of Ego-Ident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8(1). 301-312.
- Park, J. H. & Chung, O. B. (2002). The Family System Types of Circumplex Model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0). 49-63.
- Roh, B. R. (2013). A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 The impact of economic instability and leisure.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4(3). 171-193.
- Seo, B. Y. (1975). *Psychological research on self-identity form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yung Buk. Korea.
- Song, I. S. (1998). Explore self-concept. Seoul : Hakjisa.
- Song, S. H. (1994). *The Effects of family type and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on Korean adolescents' ego identity form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 Nam. Korea.
- Yoon, M. S. (1989). *Study on the ego identity of a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에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에 대한 이해와 발달을 돕고자 포트폴리오 수업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보고, 여중생의 자아정체감에 주는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의 영향력을 알아보며, 자아정체감의 학년에 따른 발달경향을 분석하고자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단기종단연구를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강원도 강릉시 K여자중학교 2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여중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돕는 6차시의 포트폴리오 교수학습과정안은 자기수용성, 독특성, 친밀성, 미래계획성, 주체성이 발달할 수 있도록 차시마다 각 하위영역을 발달시키는 것을 학습목표로 개발하였으며,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 발달을 위해 7가지 활동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의 활동을 통해 장래희망을 정하고 적성과 흥미를 찾아갔으며,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미래계획성이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자아정체감 수업은 자기수용성과 독특성이 유의미하게 점수가 상승하였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자기수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지 않고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발달하며, 독특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발달하며, 미래계획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발달하였고 주체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지 않을수록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학년별 종단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수용성, 독특성, 미래계획성, 주체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성의 점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특성, 미래계획성, 주체성은 2학년 시기에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02월 16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02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03월 11일